

# “결사본부, 민관협력단체로 바꾸자”

## 3일 결사 진단 토론회... 향후 발전 방향 제시

“총무원장 한명이 바뀌면 종단이 바뀌는가? 아니다. 우리 불자 모두가 쇄신해야 종단이, 그리고 불교가 바뀐다. 이제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결사추진본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성교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가 불교와 시민단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불교 운동의 영역을 개척한다. 자성교쇄신결사추진본부는 오는 12월 23일 1000일 기도정진 회향을 앞두고 ‘결사를 진단한다’를 주제로 결사 평가 심층 대중공사를 열었다.

이날 이상봉 결사본부 사무국장은 ‘결사추진본부 사업 방향과 과제’ 발제를 통해 결사본부가 지난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총무원장 직속기구이자 종령기구’에서 ‘민관협력기관’으로 조직 위상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결사와 운동의 본래 취지는 종도들이 주인이 돼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대중들과 함께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함께 해나가는데 뒷받침을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붓다로살자’ 운동

과 ‘100인 대중공사’, ‘대한민국아단법석’ 등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논평자로 나선 김중규 교단자정센터 원장도 그동안 결사추진본부가 발족한 쇄신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추진본부의 활동이 대중의 외면을 받는데 기인했음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주문했다.

### 대중공사·야단법석 통한

### 시민사회 동참 유도 계획

### “실질적 쇄신 없다” 비판도

김 원장은 “백양사 도박사건을 계기로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승풍진작을 위한 법계승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자의 사퇴 등의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도박승 사건, 승려폭행사건, 부정선거 등이 이어지자 결사본부가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의



자성교쇄신결사추진본부는 12월 3일 1000일 기도정진 회향을 앞두고 결사진단 심층 대중공사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사운동을 시민운동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면 받게 됐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불교계의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불자 모두가 동참하는 운동으로 결사운동이 전개돼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한국사회와 한국불교의 모든 구성원은 수십년간 이어온 공업으로 이어져 있다”며 “자신이 불교의 여러 문제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외면하는데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총무원장 한명을 바꾼다고, 또는 총무원을 바꾼다고 불교계가 바뀌지

않는다”며 “진정한 쇄신은 그 구성원 하나 하나가 쇄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이 모일때 불교계는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중공사에는 자성교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과, 결사총괄부장 덕산 스님, 前 조계종 노동위원 혜조 스님과 김중규 교단자정센터 원장,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봉 결사본부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 “경비원 대량해고 불자들이 나서 막자”

### 조계종 노동위, 호소문 발표

내년 1월 경비직 노동자 최저임금제 적용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해고 위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음)가 이례적으로 불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동위는 2012년 적용예정이었던 경비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이 아파트 입주 주민의 반대로 연기된 적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경비원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불자 시민들의 이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해고 추산 경비원은 전국 25만명 가운데 5만명 가량. 만약 입주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에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가 현실이 된다면 현재 24시간 맞교대에 턱배업무,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화단관리 등 온갖 잡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비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생겼다.

노동위는 “아파트에서 대략 월평균 5천원 정도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해고없이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수 있다”며 불자들을 향해 “이웃들에게 한 끼 식사, 한잔 커피 값이면 경비노동자들과 같이 살 수 있다고 호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오대산 사고본 일제 침탈 확인 문서 월정사로

### 동국사, 3일 '사리탑묘찬양회 취지문' 월정사에 기증

### 실록 반출 경위 등 자세히 기록 본지 1019호 통해 최초로 공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일제 침탈을 재확인하는 문서로 11월 16일 본지(제1019호)에 최초 공개된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양회 취지문’과 ‘발기인 명단’이 오대산 월정사에 기증됐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12월 3일 동국사를 방문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에게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양회 취지문’ 등을 기증했다.

세로27.5cm 가로 79cm의 겹지에 인쇄된 이 문서는 종걸 스님이 2012년 일본 경매에서 낙찰받아 보관해오던 것이다.

취지서에는 오대산 월정사의 창건 유래 및 중수과정의 상세히 기록되었으며, 특히 당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서명이 담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일제 침탈 경위가 상세히 기술돼 있어 중요한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종걸 스님은 “2012년 겨울 석전 박한영 스님 자료를 수집하던 중 오대산 월정사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사진 오른쪽)은 12월 3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에게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양회 취지문’ 등을 기증했다.

관문문서가 일본 경매에 출품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해 본 결과 조선왕조실록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경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낙찰받게 됐다”고 입수 경위를 설명했다.

스님은 또 “현재 서울대 규장각과 고궁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는 실록과 의궤는 본래의 자리인 오대산 월정사에 보관돼야 한다”며 “월정사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환지분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월정사에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귀중한 자료를 월정사에 기증한 종걸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월정사의 역사와 조선왕조실록

의 일제 강제 반출 경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근세 오대산의 역사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적멸보궁 봉찬을 할 예정으로 실록이 본래자리에 있던 오대산으로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정사는 이번 취지문을 바탕으로 의궤 제자리찾기 운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월정사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의궤를 제자리인 오대산 사고로 돌려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문서에는 조선왕조실록의 반출 경위 외에 오대산 중대(사자암)의 진신사리탑을 정비하기 위한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양회’의 면모가 담겨있다. 발기인으로는 한암 스님 외 53인, 역원은 회장에 증추원부위원장 후작 박영효, 법주에 한암 스님, 평의원에 용주사 주지 대련 스님 등 총 45인이 이름을 올렸다.

취지문 찬성자는 당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비롯해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육당 최남선, 증추원 참의 남작 박기양, 평남지사 원전관(閔田寬) 등 138인으로 당시 최고 권력자에서부터 정·재계, 학계, 언론계, 불교계 등 대중이 모두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군포교, 물량보다 감성을 움직여야”

### 조계종 포교원, 제60차 포교정책 연찬회 개최

군 포교의 실상을 파악하고 군 포교와 대학생 포교를 연계해 청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은)은 12월 4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군포교의 지향과 대학생 포교와의 연계성’을 주제로 제60차 포교정책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서는 장성화 군종교구 기획실장이 ‘군포교와 대학생포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정우 군법사 중령이 ‘군장교 포교의 중요성과 포교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성화 기획실장은 “예전에는 지휘관들이 종교 행사 참여를 권유하고 강요까지 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인권적 차원에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종교적 관심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도 종교 행사 참석률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기획실장은 군 포교도 이제 양적인 포교에서 질적인 포교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자료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포교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요새 관심이 높고 있는 영상 프로그램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교리의 전달보다는 감동적인 동영상이나 감성을 움직이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밖에 대학생 포교와의 연계를 위해서 장병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합동 수련회나 법회를 열고 지역별 군 법회에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나은 기자

## 공동체 정신 회복, 종교에서 찾다

### 불교사회학, 12월 3일 종교공동체 토론회 개최

### 금강 스님 “지역과 소통 필수”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와 경쟁논리에 의해 공동체 정신을 잃어온 현대사회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대사회 속의 바람직한 종교공동체의 지향’을 주제로 종교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불교계서는 해남지역의 사찰공동체를 이룬 미황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NGO계의 인드라망 공동체, 가톨릭의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 종교공동체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미황사 주지 금

강 스님은 해남땅끝마을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원동력을 지역공동체와의 소통에서 찾았다. 금강 스님은 “한문학당을 비롯해, 어르신노래자랑, 작은학교살리기 운동 등 사찰로서 신도공동체,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주효했다”며 “그런 가운데 수행전통을 중심으로 둔 종교본질을 잃지 않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재가연대, 새 집행부 인선 임박

### 1일 임시 총회서 미래특위 구성

참여불교재가연대(공동대표 이수덕·임완숙)의 조직 새단장이 임박했다.

재가연대는 12월 1일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이끌 어갈 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우희중 서울대 교수를 비롯 김형남·허태권 전 대표, 김중규 자정센터 원장, 정운용 감사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9월까지 위원을 늘릴 계획이다.

위원회는 재가연대 미래상을 마련하고 차기 집행부 인선과 재정난 해결을 위해

재가연대가 소유한 건물 일부 매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월 중에 임시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가연대가 소유한 우리합계 빌딩 중 1층 층을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재가연대 소속 2,3,5층 건물 중 5층을 매각하고 나머지 2,3층은 명의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5층에 입주해있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내년 3월 이전할 계획이고 포교사단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이카데미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질 공간이 크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개정판**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은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 추천본사 - T.033-243-1795, 243-1787 • 불서총판 운주사 -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